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허 신 행**

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방안

쇠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수입개방압력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공산품수출이 늘어날수록 국내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 축산물의 수입개방압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개방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한국경제가 그만큼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징후라고도 말할 수 있다. 바람직스런 것은 개방압력을 피하거나 완화시키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쇠고기나 유제품 생산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많은 투자와 피나는 노력을 전제로한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우선 시급한 것은 개방의 시기를 늦추는 작업이다. 만일 우리 정부가 텔레비전이나 자동차 같은 공산품의 수입을 일찌기 개방해 버렸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생산성향상과 수출증대를 꾀할 수 있었을까. 물론 비육우나 낙농산업이 제조업부문과 같은 비교우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렇지만 광대한 산지와 남아돌 천수답 및 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최소한 수입대체산업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여기에다가 농가소득을 더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축산이라는 사실까지 감안할 때 초식가축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식가축분야는 아직 성숙 이전인 발전초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일이 매우 중요해진다.

축산물 수입개방의 시기를 늦추는, 즉 시간을 벌어 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자들이 한 곳으로 뭉쳐야 한다. 그리고 온갖 지혜를 동원해야 한

다. 국내외의 경제여건을 조사 분석하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축산물수입은 영원히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이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수입개방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므로 우리의 노력도 하루속히 경쟁력 강화에 모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치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 남는 길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다. 수입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는 국가의 생산자와 한번 겨루어 보는 것이다. 부존자원의 배분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결코 뒤떨어질 이유는 없다. 이러한 확신 위에서 새로운 각오를 굳혀나가기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먼저 비육우 생산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부터 제시해 본다.

첫째, 비육우 생산 농가당 사육규모를 늘려서 쇠고기 kg당 생산단가를 낮추어야 한다.

둘째, 정책당국은 사육규모를 늘리고자 원하는 농가에 중기 저리자금을 융자해 줄 필요가 있다.

세째, 저렴한 조사료원을 개발하고, 사양기술을 혁신해서 생산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네째, 도축장 및 도매시장을 통폐합시켜서 경제적인 능률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공정거래제도를 확립시켜야 한다.

다섯째, 육류의 등급제도와 자율가격제를 정착시켜서 경쟁에 의한 유통의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낙농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몇가지 대응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첫째, 생산자는 사양기술혁신 내지 경영개선을 통해서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단하게 쏟아야 한다.

둘째, 낙농업계의 대표와 정책당국은 공동의 노력으로 집유선 일원화를 꾀해야 한다. 동시에 원유의 검사와 계량의 공영화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세째, 생산계절별, 원유의 성분별, 원유의 용도별 차별가격제를 실시함으로써 우유의 수급균형유지는 물론이고 유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네째, 시유용 원유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생산활당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고도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